

연구결과는 반드시 실무에 적용할 것

심화된 경쟁환경속에서 기업들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계와 학계에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연구를 체계화, 실용화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가 설립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지원철 교수를 통해 창립배경과 활동방향을 들어봤다.

〈글/박민식 기자〉



▲ 데이터 마이닝의 대단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업계관계자들이 워크샵에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제1차 데이터 마이닝 워크샵 및 창립총회 모습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는 지난 6월에 설립된 데이터 마이닝 연구단체로서 학계 및 업계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이다.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는 97년 6월에 첫 준비모임을 시작한 이래 10차례의 모임을 거쳐 지난 6월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발견 또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과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개발, 활용에 관한 제반 문제의 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지원철 교수는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업 정보분석환경의 개혁이며 연구회를

통해 연구된 기법 및 자료는 반드시 실무에 접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활동방향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의 활동방향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에 필요한 분석 알고리즘을 연구하며 일반 대중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해 정보관리 마인드를 개혁하는 것이다.

워크샵은 Technical Session, Tutorial, 그리고 벤더 솔루션 소개 분야로 나누어 연간 2회 실시되며 매월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의 홍보를 위해 정기 세미나의 내용, 학계동향, 산업계동향, 관련 신

제품 소개를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필수조건으로 보고 이 분야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마케팅을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볼때 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지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고객 자료는 몇십가지 항목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한 소비자에 대해 1천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부족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마이닝의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전략적 의사 결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에는 MIS, 통계학, 전산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신경망 등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마이닝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고 자료를 분석하는 종합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향후 추진방향

최근 기업 실무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스 단체인 DW SIG(Special Interest Group)와도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할 방침이며, 세계적인 데이터 마이닝 연구단체인 SIGKDD(SIG Knowledge Discovery in Data)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회는 데이터 마이닝 개념의 확산을 위해 데이터 마이닝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연구회를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특별한 회원 자격은 없으며 데이터 마이닝에 관심있는 사람은 데이터 마이닝 연구회에 연락하면 참여할 수 있다.

02) 332-8133, sigdm@wow.hongik.ac.kr 

■ 데이터 마이닝의 역할 및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여러 기업은 정보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의사결정지원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OLAP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OLAP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OLAP과 함께 의사결정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한 단계 높은 지식발견 방법이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기업에 산재한 방대한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 기업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최근 DB마케팅, 고객 이탈방지를 위한 고객관리에 사용되는 등 쓰임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정보기술이다.

■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틀이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축척된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들어 포철은 정보화에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자동화가 잘된 기업인데 자동화에 따른 데이터를 3개월정도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 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경영층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

■ 향후 데이터 마이닝 시장은 어떠한가?

데이터 마이닝 시장 전망을 논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을 키워야 한다. 앞서 얘기한 것 처럼 국내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장은 미약한 상태이므로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은 상호 공존해야 한다. 향후에는 데이터 마이닝을 생각하지 않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불필요해 질 것이다. 향후 데이터 마이닝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OLAP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이다.